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본격화...답례품·혜택 적극 알려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자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하고, 답례품과 혜택을 적극 알리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최근 동구 서석동 KT전남본부 광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29개 업체의 38가지 답례품을 선보였다. 이날 '광주극장과 E.T 야구단의 벚이 돼주세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금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앞서 동구는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자와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고향사랑기금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기금사업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는 1935년 개관한 현존 최고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을 활용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근현대 문화자원 등록, 시설 개선, 연계 인문 사업 등을 통해 국내 대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기금사업은 'E.T 야구단(East Tigers) 지원 프로젝트'로, 운영비 지원과 함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제약 없이 스포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내 야구 활동 공간 조성 등 장애인의 꿈과 재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택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지역 내 소중한 문화자원인 광주극장을 보존하고 차별·경계 없는 장애인화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10~11일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답례품과 사업 홍보, 기부 동참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광주+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 호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주민들 가운데 보살핌과 도움이 절박한 이들이 '광주+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광주+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살핌과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구는 지난 4월부터 빈틈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가사 지원을 비롯해 식사, 동행, 건강, 안전,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 7개 공통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인 퇴원 1인가구 태백 돌봄과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간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 서비스의 문을 두드린 인원은 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서비스 지원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청자의 상황을 살핀 뒤 328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20대 청년은 홀로 사는 중 교통사고로 한쪽 팔이 절단되고 다리에 철심까지 심은 상태여서 음식 조리 및 설거지 등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 청년은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봉선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부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할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간병을 해 왔으나, 최근 허리협착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 지자 방문 진료와 가사지원, 주거편의 등의 서비스를 요청해 통합돌봄을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한 학생은 아버지가 퇴근하는 밤 11시까지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소아 우울증 및 결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희태 기자

1인 청년 삶 지원, 광산구 '나 잇수다' 운영

공간정리·건강 체크·심리검사 등 총 160명 모집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1인 청년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나 잇수다' 사업의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대상은 광산구 내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만19세~39세)로, 우리 집 넓히기 공간정리(40명), 건강 체크(60명), 마음 두드림 심리검사(60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총 160명을 모집한다.

우리 집 넓히기 공간정리는 광산구 내 원룸에 전·월세 임차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이 주거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정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건강 체크는 광산구 보건소를 통해 체성분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 및 연계 지원한다. 마음 두드림 심리검사는 총 8개 심리검사 중 청년이 원하는 2종을 선택한다. 심리검사 후 1:1 해석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집은 6월5일부터 선착순으로 한다. 프로그램별 인원이 충족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누리집 '새 소식'이나 광산구 시민경제과 청년 활력팀(062-960-3873)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홀로 사는 청년이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북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2월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에 연이은 쾌거로, 데이터 분야에서 북구 행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운영수준 격차 해소와 국가정책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70곳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에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4개 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별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었다.

북구는 모든 평가 영역에서 고르게 점수를 획득해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30여점이 높은 89.26점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북구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계획수립, 홍보활동, 수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또한 품질 진단실시와 신속한 오류 처리로 공공데이터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재섭 기자



서구는 청소년들이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공간이자 청소년을 위한 휴식·문화·교육 복합시설인 광주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서구 상무오월로 23)가 개관했다고 밝혔다.

서구 청소년꿈누리센터 개소

광주 서구는 청소년들이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공간이자 청소년을 위한 휴식·문화·교육 복합 시설인 광주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서구 상무오월로 23)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는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2002.65㎡) 규모로 댄스실, 밴드실, 북카페, 자치활동실, 요리실, 집단상담및심리검

사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명칭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또한 센터에는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서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입주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특히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은 서구 관내에서 금호동과 치평동에 이어 세 번째 문을 연 구립 청소년 수련

시설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자치활동을 지원한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은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가영 기자

함평 HAMGYEONG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